

Raonatti 10th Timor-Leste

10월 보고서



Raonatti 10th Timor-Leste

Oct		1	2 개천절 행사(한국의 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Lee아나간사 님 방문
20 Lee아나간사 님과 소풍	21	22 떼뚝어 수 업 끝(시험)	23 End Poverty 벽화 작업 기간	24	25	26
27 청년들과 소풍	28	29 Atti Klase 공지	30 Eliza&Sofia 사메 방문	31		

Raonatti 10th Timor-Leste

개천절 행사 (한국의 날)



Raonatti 10th Timor-Leste

개천절 행사 (한국의 날)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동티모르의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동티모르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티모르의 아띠들도 초대되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자원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Raonatti 10th Timor-Leste

End Poverty Campaign



Raonatti 10th Timor-Leste

End Poverty Campaign

10월 3일 End Poverty의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9일에 라온아띠가 티모르 YMCA에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현지 Y 스텝회의 결과 벽화작업을 빈곤퇴치 메인 프로젝트로하기로 했다. 티모르 청년들과 함께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 퇴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청년들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환경과 미래, 경제적인 부분 등에 고민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빈곤퇴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센터 주변에 남은 벽을 이용해 청년들끼리의 화합과 청년문제(청년 실업, 폭력, 환경 등등) 해결을 위해 벽화작업을 진행하여 25일에 마무리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End Poverty 보고서 참조

Raonatti 10th Timor-Leste

이아나 간사님 방문



Raonatti 10th Timor-Leste

이아나 간사님 방문

국내에서 라온아띠를 담당하시는 이아나 간사님이 커피관련 사업으로 동티모르에 방문하셨다. 방문기간 중 라온아띠 단원들과 개인 면담을 하고 팀 빌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 빌딩 결과 회의와 나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팀원들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Raonatti 10th Timor-Leste

떼뚝어 수업 종료



Raonatti 10th Timor-Leste

떼똌어 수업 종료

한 달 동안의 현지어(떼똌어)수업이 끝났다. 떼똌어를 가르쳐주시는 간사님들이 정식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떼똌어를 가르쳐주어서 감사함을 느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렵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크게 뒤쳐지는 것 없이 수업에 잘 참여하였다. 하지만 아직 말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에 앞으로는 아이들, 청년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청년들과 소풍



Raonatti 10th Timor-Leste

청년들과 소풍

한 달에 두 번 동티모르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청년모임 시간에 소풍을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27일에 마을청년들과 함께 바닷가로 소풍을 갔다. 벽화를 함께 그렸던 친구들과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친구들도 포함하여 함께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바닷가에서 축구를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Raonatti 10th Timor-Leste

Atti Klase 시작 공지



Raonatti 10th Timor-Leste

Atti Klase 시작 공지

11월 5일에 시작될 Atti Klase에 대한 시작을 공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수업의 내용과 시간, 사진 등을 첨부하여 포스터를 만들었고 센터 주변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마침 당일에 9기들이 진행했던 Atti Klase의 미술수업 결과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있을 Atti Klase를 알렸다. 이제 만나게 될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기대되면서도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

Raonatti 10th Timor-Leste

Eliza & Sofia의 Same방문

서지안 단원(Eliza), 박새롬 단원(Sofia)이 휴가기간 동안 한국YMCA와 동티모르 YMCA가 함께 하는 커피사업의 커피생산지인 사메(Same)지역을 다녀왔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딜리를 떠나 사메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지역을 거치며 딜리와 다른 아름다움을 보고 느꼈다.

사메에 도착해서 보게 된 전통가옥과 커피나무를 비롯한 숲이 아름다웠다. 또한 마을 사람들도 외국인인 단원들을 보며 반가이 맞아 주었다. 딜리와 사뭇 다른 사메의 모습은 오가는 동안의 멀미로의 고생을 잊게 해줄 만큼 매력적이었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이 달의 독서 리뷰

소설 '28'



ANIS : 이번 달 내가 읽었던 책 중 가장 좋았던 책은 소설 '28'이었다. 뭐, 한 달 동안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28'은 정말 오랜만에 본 소설다운 소설이었다. 일단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다. 마치 학창시절 무협지를 읽듯이, 어린 시절 해리포터를 읽듯이 한 번 손에 쥐면 놓기가 힘들다.

책은 7명(?)의 등장인물(등장인물 중 개도 있다.)의 시점으로 돌아가면서 전개된다. 각자의 사정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맞물려가는 과정이다.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고립된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었는데 빠른 전개와 빈틈 없는 내용 구성으로 전혀 지루할 틈이 없을 뿐더러 다 보고나니 말 그대로 정말 재미있는 한 편의 '소설'을 본 것 같다.

Raonatti 10th Timor-Leste

이 달의 독서 리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점 3.5점을 준 것은 중간중간 스토리에 드러났던 아쉬운 점 때문이다. 한국 사람이라 러브라인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점도 아쉬웠고, 너무 잔인하다(많이 죽는다.) 싶은 장면도 나왔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7명(?)인지라 초반에 한 번 손을 떼면 앞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의 시점, 개들의 시점을 좀 더 명확하게 나눴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결말도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많이 아쉬웠다.

정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에 잠시 모든 걸 잊고 싶은 분들(현재에 많이 지쳐 있는 사람, 잠시 현실도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

딱 서
차렸!

끝!
다음달에
만나요~